

2020 년 3 월 12 일

교구의 여러분

대주교 마에다 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조치 (제 3 차)

+ 주님의 평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오사카교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했으므로 알려드립니다.

1. 3월 15일(일)부터 3월 31일(화)까지, 본당을 비롯해 정기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신자가 참석해 주일 미사가 진행되고 있는 성당과 모든 시설에서의 미사를 중지 하십시오.

2. 3월 15일 · 22일 · 29일의 일요일은 오사카 교구의 모든 신자에게 주일 미사에 대한 의무를 관면합니다. 각자가 가정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기도를 하거나 묵주기도 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도쿄교구에서는 주일미사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도쿄교구 홈페이지 (<http://tokyo.catholic.jp/>)를 참조하십시오.

3. 상기 1의 기간 동안, 사제는 아주 적은 수의 참가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미사는 중지하십시오. 또한 수도원이나, 사제가 개인적으로 주일미사를 바칠 때 "미사전례서"의 "어려움 속에서"(困難の中で) 경문을 사용 할 것을 허용합니다.

4. 상기 1의 기간 동안 미사 이외의 여러 행사나 강좌 등에 관해서는, 가능한 연기하거나, 중단하도록 하십시오.

5. 결혼식과 장례식은 충분한 감염대책을 취한 후, 정상적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6. 이 기간 동안 교구 주최 행사 · 회의 등에 대해서,

(가) 3월 20일(금)의 "교구 성소의 날 및 부제 서품식"은 연기합니다.
이 날은 교구 성소의 날로서 교구 성소를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클라레시안 수도회의 뉴·이(ニュ・イ) 신학생의 부제서품식 날짜는
미정입니다.

(나) 18일(수) 사제평의회와 지역위원장 · 위원장회의, 24일(화) 경제문제위원회,
25일(수) 사제 월모임과 고문위원회는 모든 예정대로 실시합니다.

가능한 한, 이 알림을 외국인 신자를 포함하여 모든 신자들이 알 수 있도록
주위에 전해주시시오. 또한, 이 소식의 주요 외국어 판을 순차적으로 교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게재하므로 참고하십시오.

4월부터 조치내용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일년 중 가장 중요한 성주간을 향해가는 이 시기에, 미사에 참례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이 고통을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놓여있는 어려운
상황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이 시기를 잘 보내도록 합시다. 이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상